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캄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이사 60,1-6

화답송 | 시편 72(71),1-2.7-8.10-11.12-13(© 11 참조)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제2독서 | 에페 3,2.3-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2,1-12

영성체송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성가 | 입당 487 예물준비 211(213)
영성체 178(165) 파견 112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이선민 마리아
- 이만제, 원광남

생미사 지향

- 유 데이빗, 유 데니엘, 유 케이디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노애란 사비나, 민덕미 안젤라
- 이흥규 요한 가정
- 이장학 토마스 건강 회복
- 이지연 안나레지나 생일 축하
- 손영소 스테파노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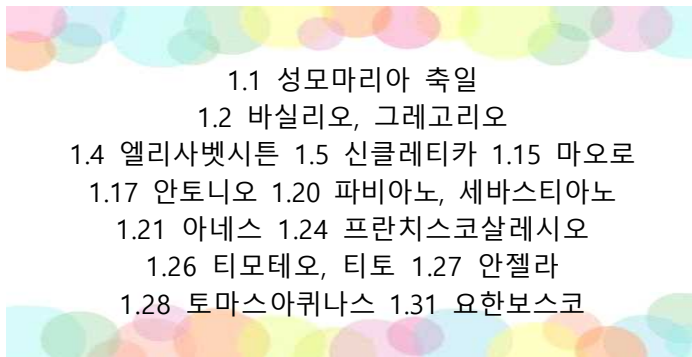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마태 2, 9-10)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1월 4일	김유화	민완준	장민우	장민우	유정옥 이기원 정다경	한서희 이예진
1월 11일	전푸름	강호영	민재인	민재인	이영혜 백이백 이정현	어린이 복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 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1월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2026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시작

2026년 새 성경통독표를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하루 15분씩 표에 제시된 순서대로 날마다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면 됩니다. 와 닿는 말씀을 작은 쪽지나 공책에 써서 기억한다면 더욱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성경통독을 마치신 분은 성경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일년일독 성경통독' 완주하신 분

김효진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이경자 율리안나

2026년 달력 배부

본당 달력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코리안 오피스에 와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6년 친교실 봉사 단체 명단(재조정)

올해 친교실 봉사 일정입니다.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친교실 봉사 일정표	
1월	사목회
2월	요셉회, 성모회
3월	꾸리아
4월	연령회
5월	학부모회
6월	청년회
7월	선교분과(성령기도, 성소후원회, 신명)
8월	울뜨레아
9월	청년회
10월	학부모회
11월	꾸리아
12월	요셉회, 성모회

2026년 부활 세례반/견진성사반 시작

2026년 세례반/견진반을 시작합니다.

교육기간: 1) 세례반: 1/4-3/29

2) 견진준비반: 2/22-3/29

시간/장소: 1) 세례반: 3층 컨퍼런스룸, 1:00 PM~

2) 견진반: 추후 공지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비대면 『성서사십주간·신약』 수강 신청

가톨릭성서모임에서 비대면 『성서사십주간- 신약』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매주 읽은 성경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고 생활하며, 매주 1회, 15주간 비대면으로 모여 성경 이해를 돕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주최: 미동부 가톨릭성서모임

일시: (수) 1/21~4/29 동부 오전10시.

또는 (목) 1/22~4/30 동부 저녁8시

교재/수강료: 『성경읽기안내-신약』교재 + 수강비 \$70

진도: 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

신청마감: 2026년 1월 11일(주일)

문의: 안 루피나 845-825-9562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그림 해설



‘HIC’ 여기 | 모태에서부터 짜여진 감각이 있어, 바람의 흐름도 감지하고, 빛이 오는 곳도 알아봅니다. 그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곳, 거기에는 ‘여기가 바로 거기’라는 뜻의 글자, ‘HIC’이 있습니다. 빛이 오는 곳을 따라 우리가 찾아가는 곳도 거기로, 빛의 그림자를 따라 우리가 떠난 곳도 거기임을 알고 나면, 마침내 사랑의 궤적도 그렇게 이어져 있음을 알 것만 같습니다. -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선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WINE & LIQUOR

원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야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운 플로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필러,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리차엘라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happyhomecare.rn@gmail.com

I:1 맞춤 방문 간호
(투약·검진·돌봄)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제59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요약)>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하여****“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이 오랜 인사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소 주님 부활 대축일 저녁에 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21)라는 그분의 말씀은 그저 평화를 향한 바람이 아니라, 이 인사를 받는 이들에게 참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다주고 결과적으로 모든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된 저녁부터 바로 저는 이 보편된 선포와 더불어 저의 인사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곧 무기를 내려놓으며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겸손하고 인내하는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평화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품어 안으시는 착한 목자이신(요한 10,11,16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를 갈라놓는 분열의 장벽들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 참조). 그리스도의 현존, 그분의 선물과 그분의 승리는 인내로운 수많은 증인을 통하여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고 우리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더욱 선명히 빛나게 됩니다.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빛을 보고 그 빛을 믿어야 합니다. 이는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하는 부름입니다. 평화는 실재하며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평화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 이해의 폭을 넓혀 주는 부드러운 힘을 가졌습니다. 평화는 폭력에 저항하고 폭력을 이깁니다. 평화는 영원의 숨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악에게는 “그만”이라고 외치지만 평화에게는 “영원히” 하고 속삭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 이러한 지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공포로 일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는 편향되고 왜곡된 관점에 휩쓸리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희망이 없고 다른 이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담론들을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죄로 상처를 입었더라도 언제나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지녔든 지니지 않았다고 느끼든, 우리 마음을 평화에 열려 있게 합시다!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또 우리의 손 닿는 곳 너머에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그 평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알아봅시다. 평화는 하나의 목표이기 이전에 실재이고 여정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선을 기억하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선을 다시 선택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

예수님께서서는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친밀한 신뢰를 나누시며 당신과 함께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곧이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그들의 고통과 공포는 분명 예수님께 곧 닥칠 폭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살펴보면, 복음서들은 제자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비폭력적인 응답은 그들 모두가,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하였던 길입니다. 그러나 스승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이 길을 따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계속해서 불편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분께서는 무력으로 당신을 보호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히 되풀이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요한 18,11; 참조: 마태 26,52).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는 무기를 내려놓은 평화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한 가운데에서도 그분의 평화는 비폭력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또한 비극적인 상황에 너무나 자주 연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이 새로움의 예언자적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평화

선은 무기를 내려놓게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신 이유일 것입니다. 가장 깊이 내려가 죽은 이들의 거처에까지 다다르는 그 강생의 신비는 젊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작되어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이 깨지는 가운데,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위기는 경종을 울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분쟁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이어가고 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레오 13세 교황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는 절실한 바람을 느낍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보다는 둘이 나으니 자신들의 노고에 대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준다. 그러나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그를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다(코헬 4,9-10).’ 또한 ‘의좋은 형제는 요새와 같다’(잠언 18,19).”15)

이것이 바로 희망의 희년이 맺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희년은 수많은 사람이 순례자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마음과 정신과 삶의 무장 해제를 내면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으로써 분명 이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4-5)

바티칸에서 2025년 12월 8일

레오 14세 교황

[내용출처: https://cbck.or.kr/Documents/Pope/20250606_1]